

광주시 '베스트10 정책', 시민이 직접 뽑는다

내일 '스타정책 경진대회' 개최
광주 복합 소핑몰 등 후보 올라
시민 300명, 전문가 30명 참석

올해 광주시의 '베스트10 정책'은 뭘까?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빛낸 우수정책들을 직접 뽑는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여는 '스타정책 경진대회'는 기존 우수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연중 지속해 진행됐으며, 평가방법도 혁신적으로 전환해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

에서 시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행사는 시민 중심의 연중 지속 평가인 '정책평가박람회'의 하나로, 올해의 베스트10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 정책들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렛대가 될 '광주 복합 소핑몰 이제는 됩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심의료 체계를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AI 특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최초 AI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로 기업이 찾아오는 AI 대표도시' 등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다.

이날 경진대회는 시민평가단 300명과 전문가평가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후보 정책 발표 직후 전자투표기를 활용해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최종 점수 집계는 사전평가 30%, 시민평가단 40%, 전문가평가단 30% 비율로 산정해 '올해의 베스트10 정책'을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 민선 8기 224개 주요사업과 176개 공약사업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복지·돌봄·포용 ▲안전·교통 ▲환경·청년·교육 등 5대 분야 52개 후보정책을 선정했다.

4월에는 52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평가인 '광주온',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책 30개를 선정했다.

5월25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청에서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했다. 30개 사업별 추진현황을 담당자가 직접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각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 시민 2078명이 정책평가에 참여했다.

9~11월에는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진행해 5개 자치구 통장·주민자치위원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별 득표를 합산 집계해 30개 후보 사업 중 15개 사업을 '올해의 베스트10' 후보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에 3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 3명 수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여하는 「재난안전 특별유공」 포상에 3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행사」에서 입암면 유영준 금학리 이장은 대통령 표창, 입암면 송영현 대천리 이장, 김형중 입암면 자율방재단장은 국무총리표창, 입암면 금학리 이호국씨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울경, 울산서 경제동맹 성과 홍보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토론회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과
청년인구 유출·인재양성 등 논의

울산시는 3일 오전 10시 울산문수컨벤션에서 '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역할과 성과를 홍보하고, 부울경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안승대 행정부시장, 하혜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회 2기 위원장,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되었는데, 기조강연은 하혜수 위원장이 부울경 초광역 발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청년인구 유출과 인



울산시가 작년 7월 12일에 열린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모습.

재 양성', 이원규 부산연구원 박사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1시간 생활권'을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은 이수식 울산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경제동맹의 출범 이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국비 대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협력력을 통해 지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강진군,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속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 통과

폐교된 성화대를 리모델링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진군 '청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이 28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2012년 폐교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옛 성화대의 부지를 매입해 공간 혁신 및 4차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작년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30억 원(도비 200억, 군비 130억)을 확보하고, 작년 9월 강진군 자체 예산으로 7만 평의 부지와 8개동의 건물로 구성된 옛 성화대의 재산을 모두 매입했다.

군은 옛 성화대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 강진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해 교육 및 문화,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관 구축, 드론산업 혁신밸리 조성 등을 통해 생활형 정주 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이르면 시간내에 군관리계획시설(학교)해지 입안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8억 목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제막식

경주시가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경주시가 후원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김재훈 경주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나눔봉사단원, 기부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경주시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8억 원으로 설정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8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캠페인 첫날부터 19건의 성금, 총 1억 7000만원이 모여 훈훈한 시작을 알렸다. 주요 기부자로는 ▲나원산업(주) 8000만원 ▲(주)현대강업 2000만원 ▲(사)경북여성기업인협회 경주지회 1000만원 ▲영양숯불갈비 1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주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나눔의 온도를 뜨겁게 달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온기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북교육청이 4일 경산을 시작으로 6일 포항과 13일 구미에서 '청소년 행복 콘서트'를 차례로 연다.

경북교육청, 청소년에 희망·격려 전달

경산, 포항, 구미서 '행복 콘서트'

경북교육청이 4일 경산(시민회관)을 시작으로 6일 포항(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과 13일 구미(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청소년 행복 콘서트'를 차례로 연다.

이 콘서트는 수험생과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경북교육청과 TBC가 기획한 것으로 매년 지역별로 열린다.

올해 경산 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힘차게 나아가

는 '꿈'을 주제로, 포항 콘서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멋지게 도전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주제, 구미 콘서트는 새롭게 펼쳐질 학생들의 길을 응원하며 새로운 첫발을 희망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아이들과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꿈·자유·시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달한다. 출연진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소통하며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부산시 시내버스 디자인 9년 만에 변경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부산 시내버스 디자인이 9년 만에 바뀐다.

부산시는 4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빅 버스(BIG BUS)'로 명명된 새 시내버스 디자인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종류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심미성, 상징성 등 요소들을 담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통영시 숲가꾸기 추진 '우수기관' 선정

통영시는 경상남도에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산림자원분야 평가 중 숲가꾸기 추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상남도 전 시·군의 산림자원 분야 전반에 대한 서류 및 사업장 현장 평가로 4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한 평가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 통영시는 6년 연속 숲가꾸기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지역특색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전사고 미발생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20.1억 지급

창원특례시는 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2146명에게 총 20억 1200만원 지급해 대학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2024년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